



## 거치연금의 노후소득 증대효과

최장훈 연구위원

■ 노후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대다수 은퇴자는 자산의 일부만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자산의 일부를 거치연금으로 전환하고 남은 자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2) 자산의 일부를 즉시연금으로 전환하고 남은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 3) 자산을 모두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일정기간 후에 남은 자산을 즉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본고에서 위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노후소득의 크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치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연소득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우리나라의 거치연금 판매는 매우 저조하므로 거치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거치연금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노후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퇴 시 모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sup>1)</sup> 실제로 대다수 은퇴자는 자산의 일부만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자산의 일부만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이유로는 건강악화 시 비용에 대한 대비,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치하락, 그리고 유산상속에 대한 동기 등을 들 수 있음.<sup>2)</sup>

■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과 자산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은퇴 시 총자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은퇴 시 총자산의 일부를 거치연금,<sup>3)</sup> 즉시연금<sup>4)</sup> 등에 가입하고 남은 자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하여

1) Yaari(1965), "Uncertain Lifetime, Life Insurance, and the Theory of the Consumer".

2) Peijnenburg et.a.(2011), "Health Cost Risk, Incomplete Markets, or Bequest Motives - Revisiting the Annuity Puzzle".

3)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상품.

4) 일시에 목돈을 납입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

■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유동성 확보방법(A. 거치연금 활용, B. 즉시연금 활용, C. 일정기간 자체적으로 자산운용 후 즉시연금 가입) 간의 상호 노후소득을 비교해 보고자 함.<sup>5)</sup>

- 시뮬레이션 가정: 남자, 65세 은퇴, 은퇴 시 총자산 1억 원, 65세에서 100세까지 동일한 연소득액 유지 후 소진, 제8회 경험생명표의 연금사망률을 사용, 자산운용 이율 및 연금 이율 모두 2.5% 적용, 총자산의 21%<sup>6)</sup>를 연금으로 전환하고 남은 자산은 자체적으로 운용함.
- A: 거치연금 가입. 거치연금의 대기기간인 첫 20년은 잔여자산에서 자체 운용하여 매년 일정액을 소비하고 그 후 100세까지는 동일한 액수를 거치연금액으로 소비하는 경우
- B: 즉시연금 가입. 65세부터 100세까지 즉시연금액과 잔여자산에서 자체 운용한 금액을 합한 액수를 매년 소비하는 경우
- C: 65세부터 84세까지 총자산으로부터 자체 운용한 금액을 매년 소비하고 85세부터 100세까지는 85세에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동일 금액을 소비하도록 한 경우

■ 시뮬레이션 결과 즉시연금보다는 거치연금을 활용할 때 연소득액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sup>7)</sup>

- 연소득액은 자산만 사용한 경우 4,142천 원으로 가장 낮고 자산을 모두 연금으로 전환한 경우 5,173천 원으로 가장 높음.
- 총자산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A: 65세에 거치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65세부터 100세까지 매년 4,924천 원 소득
  - B: 65세에 즉시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65세부터 100세까지 매년 4,362천 원 소득
  - C: 85세에 즉시연금에 가입한 경우로 65세부터 100세까지 매년 4,640천 원 소득
  - 결과를 비교하면  $A > C > B$  순으로 연소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비교상 편의를 위해 65세에서 100세까지 동일한 연소득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6) 총자산의 21%를 연금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거치연금에서 대기기간 동안의 연 소득과 대기기간 후 연금소득의 크기를 같아지게 하여 은퇴 후 전 기간 동안 동일한 소득액을 유지하기 위함임.

7) Scott(2015), "The Longevity Annuity: An Annuity for Everyone?".

〈표 1〉 즉시연금과 거치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비교

(단위: 천 원)

| 구분     | 65~84세 |       | 85~100세 |       | 65~100세 |
|--------|--------|-------|---------|-------|---------|
|        | 자산소득   | 연금소득  | 자산소득    | 연금소득  | 총소득     |
| 시나리오 A | 4,924  | 0     | 0       | 4,924 | 4,924   |
| 시나리오 B | 3,258  | 1,103 | 3,258   | 1,103 | 4,362   |
| 시나리오 C | 4,640  | 0     | 0       | 4,640 | 4,640   |

주: A) 거치연금 가입. 처음 20년은 잔여자산에서 매년 4,924천 원만큼 소비하고 20년 후부터 100세까지는 매년 거치연금액 4,924천 원 소비.

B) 즉시연금 가입. 65세부터 100세까지 매년 즉시연금액 1,103천 원과 잔여자산에서 매년 3,258천 원씩 함께 4,362천 원씩 소비.

C) 65세부터 84세까지 총자산으로부터 매년 4,640천 원 소비하고 85세부터 100세까지는 85세에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동일 금액을 소비.

자료: 제8회 경험생명표의 연금사망률(남자)과 투자수익률 및 연금공시이율 모두 2.5%를 적용하여 산출함.

■ 연금은 사망률이 적용되므로 자산운용보다 높은 소득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거치연금은 대기기간 동안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한 보상 효과로 인해 즉시연금보다 연금액이 더 커지는 장점이 있음.

- 연금은 사망한 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생존자가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연금에 일찍 가입할수록 지급받는 액수는 늘어나게 됨.
- 거치연금은 일정기간 후에 연금지급이 시작되므로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액이 즉시연금보다 월등히 높아짐.
- 거치기간이 길수록 거치연금의 액수는 커짐.
  -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65세부터 100세까지 지급되는 즉시연금액은 65세에 가입하여 85세부터 100세까지 지급되는 거치연금액보다 대략 4~5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남.<sup>8)</sup>

■ 현재 우리나라의 거치연금 판매는 매우 저조하므로 거치연금 활용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여 거치연금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은퇴 시 자산 수준, 건강상태, 그리고 상속에 대한 욕구 등이 연금으로 전환하려는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거치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입시점과 거치기간, 그리고 연금급여 종료기간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kiri](#)

8) 연금액 산출에 사용된 가정은 제8회 개인연금 사망률, 이자율 2.5%임.